

지구촌 양계뉴스

러시아

닭고기 가격 30% 상승 전망

러시아 가금육 시장관계자 협회 대표 A. Terekhin은 러시아가 2010년 1월 1일부터 가금육 가공 시 염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 닭고기 가격이 2009년 초 대비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브라질과 EU산 냉동 가금육 또한 저가에 수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상승 징후는 새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0년 1월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격이 평균 10% 상승했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산 닭고기로, 2009년 12월 29~31일 1kg당 57루블 했던 미국산 닭다리는 현재 10~15% 상승한 65~70루블이다. 통닭 가격은 같은 기간 1당 60~62루블에서 67~68루블까지 상승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소비감독국의 '가금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령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가금육의 가공처리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염소 함량이 1m³

당 200mg에서 50mg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생기준은 이미 2008년 중반에 승인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가금육 생산자들이 1년의 준비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발효시기를 1년 뒤로 연기했다.

러시아육류협회 집행위원인 Sergei Yushin은 러시아 생산자들이 기술 및 시설을 선진화함에 따라 현재 가금육의 90%까지 염소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으며, 2008년 동 비율은 60%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러시아로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출하는 미국은 이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미국산 닭고기는 러시아 시장의 22%, 수입 닭고기의 79%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수입물량의 77%인 600,000톤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염소와 관련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염소 관련 규정은 러시아보다 몇 배나 더 약하다.

육류협회의 Yushin은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산 닭고기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시장은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 가금육생산자연합의 Galina Bobyleva는 지난 4/4분기 가금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충분하며, 2010년 러시아 국내 생산량을 300,000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공급부족이나 가격 상승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Webagro

美 대표단 모스크바 방문, 가금류 통상 마찰 타협 시도

러시아가 지난 1월 1일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무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1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모스크바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총괄하는 러시아 연방 소비자 보호청 관계자들과 이번 금수 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톱 빌색 미국 농무장관은 전날 미국 대표단의 방러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금수 조치가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1일 미국 육가공 업체들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염소(클로린)를 이용해 항균 처리를 하고 있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 오니슈첸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우리가 정한 법에 맞게 가금류가 처리된다면 누구도 수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 원하는 고기를 수입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6월 가금류 가공 시 염소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물에 희석하는 염소의 양이 마시는 물 기준인 ℓ 당 0.3~0.5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육가공 업체들은 물에 녹인 염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가금류 가공 과정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25년 간 염소 처리 방식을 활용해 왔다.

오니슈첸코 청장은 “미국 대표단은 이미 선적돼 러시아로 향한 가금류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것인데 우리는 그 양이 적절하다면 러시아 내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가금류 수출 시장인 러시아의 수입 금수 조치가 계속되면 관련 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항생제 사용을 이유로 미국 내 10여 개 정육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 모스크바=연합뉴스

영국

닭 전용 옷 만드는 할머니 등장

Chicken owner knits woolly jumper

An animal-lover is stopping chickens g woolly jumpers.

Published: 9:37AM GMT 05 Jan 2010



영국 웨일스 니스(Neath)에 살고 있는 여성이 닭 점퍼를 만들고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닭의 주인인 앤 듀란(Ann Duran, 55)은 추위에 떨고 있을 닭들이 안타까워 닭 전용 울 스웨터를 만들었다.

이 닭들은 한 자선단체에서 받은 것으로 계란공장에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자 이곳으로 왔다. 암닭들은 늙고 병들어 깃털이 빠진 상태. 남은 삶을 듀란의 앞마당에서 보낸다.

듀란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상관없다며 추위에 떠는 닭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스웨터를 만들었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이에 인터넷 누리꾼들은 “아름다운 여

성이다”, “그녀의 행동에 공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듀란은 친구 디온(Dionne)과 함께 닭 전용 스웨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 12마리의 닭이 울 점퍼를 입고 겨울을 나고 있다.

- 경향신문

베트남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베트남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 3천700여마리의 닭과 오리 가 살처분됐다고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디엵 켕 편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말을 인용, 지난 1월 27일 보도했다.

VNA는 최근 까마우성과 하평성 등 두 곳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AI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검역소 설치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간신문 탕니엔은 농업농촌개발부 가축위생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 기온이 떨어지는데 페프(설)를 앞두고 닭 등 가금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 하노이=연합뉴스